적조가 사라졌다

36년만에 주의보 조차 발령 안 돼 … 7월 늦은 장마에 태풍 없어 바닷물 온도 20도 아래로

매년 서남해안 연안을 붉게 물들이며 수많은 양식 어패류를 떼죽음시켜 어민들의 속을 태웠던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모습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981년 남해안에서 최초로 유해성 적조에 의한 수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주의보조차 발령되지 않은 것은 3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1995년 이후 거의 매년 여름 수산업계가 유해성 적조 피해를 입었다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피해를 입지 않았다.

9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바닷물 온도가 20도 아래로 낮아져 유해성 적조생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적조생물은 수온이 2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면 나타나고 조건이 맞으면 왕성하게 번식한다.

올해는 처음으로 적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주의보조차 발령하지 않은 첫 번째 해로 기록됐다.

유해성 적조의 주된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우리 연안에 일부 포자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활동을 시작하거나 해류를 타고 외해에서 유입한다.

올해는 적조가 발생하는 시기인 7월 초에 늦은 장마가 시작돼 연안 수온이 낮아져 경쟁 관계에 있는 규조류가 왕성한 세력을 유지하는 바람에 연안의 포자가 맥을 못 췄다는게 수산과학원 분석이다.

외해에서 유입하는 원인 생물은 대마난류를 따라 연안으로 들어와 대규모로 적조를 일으키는데 올해는 대마난류의 세력이 유례없이 강해 국내 연안으로 오지 않고 제주도 아래 대한해협으로 빠져나갔다.

태풍이 오지 않은 것도 한몫했다.

태풍은 바닷물을 뒤집어 수온을 낮추고 영양염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태풍이 하나라도 내습했다면 아열대 수준으로 뜨거워진 바닷물을 식히고 영양염류를 공급해 유해성 적조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 모든 태풍이 일본 쪽으로 치우쳐 지나갔다.

국내 연안의 유해성 적조는 남해안에서 7월 말~8월 중순에 발생해 9월 말이나 10월에 소멸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1995년 이후 유해성 적조 발생 현황을 보면 최초 발생해역은 고흥(10회), 여수(8회), 경남 통영(3회), 고성(2회), 거제(1회) 순이다. 처음 발생 시기는 8월(13회), 7월(6회), 9월(2회), 10월(1회) 순으로 나타났다. 소멸할 때까지 지속한 기간은 최장 79일(2014년), 최단 3일(2010년)이었다.

피해 규모는 1995년 764억원, 2013년 247억원, 2003년 215억원, 2001년 84억원, 2014년 74억원, 2015년 53억원 등으로 홀수해에 대체로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적조가 소규모로 발생해 3~62일 지속했으나 수산 피해는 없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라좌수영 거북선 옮긴다

이순신광장의 바다 경관 막아
현 위치서 60m 이동 시킬 듯

여수시가 이순신광장에 전시 중인 전라좌수영 거북선 이전을 추진키로 해 주목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호국충절의 고장 여수를 상징하는 전라좌수영 거북선이 이순신광장의 정면에 위치, 바다 경관을 가로막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이전을 검토중이다.

2014년 2월 이순신광장에 들어선 전라좌수영 거북선은 길이 26.24m, 높이 6.56m, 폭 10.62m 크기로 26억원을 들여 설치됐다.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썼던 진남관(국보 제304호)과 이순신 동상, 거북선을 일직선으로 배치한다는 취지로 현재의 자리에 들어섰다.

배 내부에는 밀랍인형과 무기류, 체험복 등이 전시되고 있으며 지난해 31만2844명이 관람할 정도로 명소가 됐다.

하지만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열린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때 거북선이 바다를 가로막으면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수시는 거북선 이전을 추진중이다.

여수시는 여수 밤바다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조망권 확보와 원활한 행사 진행 등을 위해 거북선을 현 위치에서 60m가량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난 8일 여수시 시민위원회에서 이전 여부를 묻기도 했다.

여수시는 5000만~6000만원의 이전 비용을 예상하고 거북선이 있는 중앙동 주민과 상인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시 이순신광장에 들어서있는 전라좌수영 거북선. 최근 바다 경관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이전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여수시, 출향민 배삯 50%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여수시가 출향민들의 배삯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9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원용규 시의원이 삼산면을 방문하는 출향민의 배 운임을 시에서 50% 지원하는 내용의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안은 여수시 삼산면에 포함된 거문도, 손죽도, 초도 지역 출향민에 대해 설날 7일, 추석 7일, 하계휴가철 30일 등 44일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산은 연간 4000만~5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문도(108.8km)는 편도 요금이 3만6000원이지만 50% 할인된 1만6000원에 갈 수 있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열리는 제18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 오늘 첫 삽

목포 죽교동 북항 4부두서

전남 서남권 수산 거점이 될 서남권 친환경 수산 종합지원단지〈조감도〉 조성사업이 첫 삽을 뜬다.

목포수협은 10일 목포시 죽교동 북항 4부두에서 수산종합단지 기공식을 갖는다.

수산종합단지는 북항 4부두 내 10만6951㎡ 부지에 294억원을 투입,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선어 위판장(6900㎡)과 새우젓위판장(1398㎡),직판장(299㎡), 수산물 가공 및 냉장·냉동·저장시설(5199㎡)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목포수협측은 오는 2019년 4월 완공되면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인 서남권에 거점을 육성하고 어업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수협 관계자는 "수산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 제주, 중국과의 접근성을 활용한 수산물 유통 중심지가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신안군 14개 읍·면에 맞춤형복지팀 설치

복지부 시범 자치단체 선정

신안군이 주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 공을 들이고 있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 맞춤형복지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최근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했다.

맞춤형 복지팀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본격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역민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다니며 적합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거점 면을 중심으로 마을별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맞춤형 복지팀의 활동으로 섬 지역 특수성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낙도지역 취약계층 발굴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복지 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골고루 전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 추모행사

오늘 익산역 광장 … 추모 공연·사진전도 열려

이리역 폭발사고 40주년을 맞은 추모행사가 오는 11일 익산시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치유 40년, 미래 40년!'을 주제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한편 아픔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다.

추모공연에는 폭발사고 당시 삼남극장에서 공연했던 것으로 유명한 가수 하춘화도 참석한다. 당시 사고 현장과 복구 작업, 이후 익산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사진전도 마련된다.

이리역 폭발사고는 지난 1977년 11월 11일 익산시(당시 이리시) 이리역 구내에서 다이너마이트와 전기 뇌관 등 40t의 고성능 폭발물을 실은 화차가 폭발해 59명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친 대형 참사였다. /익산=유정영기자 yjy@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완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접 2481㎡ 팬션·별장적합 2억4천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찰도 적합 7300만원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편안한 분위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톨게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코너 대지 93㎡ 주택 94㎡ 가게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2동 2억2천
- 서동 제일파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이전함 4억

투자 · 매도 · 교환
- 담양 창평면 소재지 대지 등 10235㎡ 요양병원 등 최적 30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6억2천
-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땅 2013㎡(609평) 조용한 생활에 적합 하루에 여객선 4회다님 육지에서 40분 3300만원
- 양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답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삼호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사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접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사옥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1층가게 27평, 2층 원룸1, 투룸2, 3층 안집 27평 은행1억 매도 5억6천(임대가능)
- 유동 모텔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텔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